

민변은 1993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민주변론)’ 창간호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총 103권을 발간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민주변론’ 발간을 중단한 채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민주변론’이 휴간된 이후로 많은 회원들이 법률가 단체인 민변이 회원들의 연구 및 활동의 결과를 한 데 담아낼 수 있는 기관지가 부재하는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해 왔습니다. 이에 현 집행부는 이러한 회원들의 뜻을 모아 ‘민주변론’을 복간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8월부터 ‘민주변론’ 편집위원회를 중심으로 복간 준비를 해왔고, 이제 그 성과물인 제104호를 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금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그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고, 안전사회를 위해 마련해야 할 수많은 숙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출범하게 되는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가 그 숙제들의 상당 부분을 해결해 주길 기대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후퇴할 대로 후퇴하여,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억압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벌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간첩을 조작하고, 국회의원을 내란음모죄로 기소하고, 또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를 하여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마치고 마지막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민변 회원들이 검찰에 의해 부당하게 기소되고, 징계개시신청이 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변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후퇴와 인권침해를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금번 복간되는 ‘민주변론’은 민변 회원들이 현장에서 발로 뛰고, 또한 법정에서 변론을 하고,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연구한 성과물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회원들의 열정과 수고가 담긴 노작들입니다. 아무쪼록 복간되는 ‘민주변론’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민주변론’의 복간을 위하여 애쓰신 편집위원 및 집필자 여러분의 수고에 무한한 감사를 포함합니다.

2014.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